



artist I

LUCA BUVO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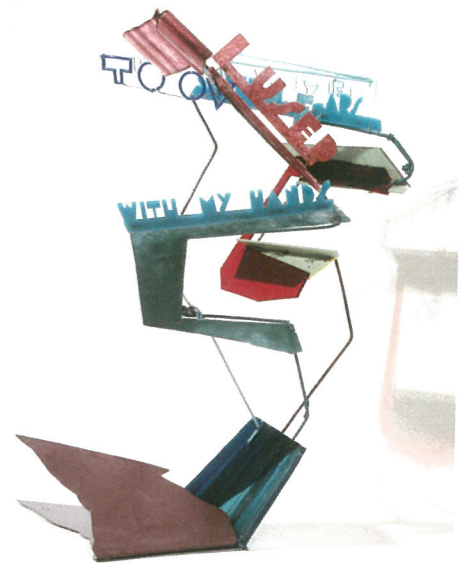
실패적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미래의 찌꺼기

인간은 지구상에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허락되지 않은, 실현될 수 없어 보이는 목표와 가치를 불나방처럼 욕망하던 존재다. 그 가운데 특히 비행(flight)과 비상(aviation)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의 리스트 중 일부로 자리했으며, 근대기가 태동하던 무렵 드디어 그 목표는 실현될 수 있었다. 비록 자신의 몸뚱이가 아닌 기계장치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비행과 비상을 욕망하는 인간의 원초적 집착은 작가 루카 부볼리의 작품세계에 크고 작은 대륙처럼 자리하는 연작들을 하나로 묶는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비행과 비상 그 자체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 보다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실현시키고 싶어 하고 원하는 인간의 생태에 주목한다. 작가는 이들이 상징하는 인간의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서 돌출된 이념적인 실패작들을 그러모아 완벽에 대한 추구를 와해시킨 불안정한 상태를 추출하는 것이다.

● 진정윤 기자 ● 사진 갤러리현대 제공

작가 루카 부볼리는 1963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베니스의 순수미술 아카데미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작가는 25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주립대학교와 SVA에서 순수미술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뉴욕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작가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필라델피아미술관, M.I.T 리스트센터, 웨더스푼미술관 등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1997년 제 2회 요하네스버그 비엔날레, 2001년 모마 P.S.1의 <Greater New York>전,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Trophy - I Used to Cover My Ears (Shadow - Crimson and Turquoise)》강화, 폴 리우레틴과 폴리에스터 레진, 와이어, 에나멜 페인트, 플렉시 글라스, 플라스틱 관, 금속 54x 33x40.6cm 2012





1, 2. 갤러리 16번지 작품 설치 전경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북, 조각,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시각예술 언어를 구현하는 작가는 크게 〈Not a Super Hero〉, 〈Flying-Practical Drawing〉, 〈Meta-Futurism〉의 세가지 연작들을 선보여 왔다. 그 중 〈Not a Super Hero〉는 1992년부터 시작된 시리즈로, 작가가 어렸을 적부터 즐겨보던 마블과 DC 코믹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슈퍼히어로 코믹스 물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Not a Super Hero〉의 세계관은 기존의 대중매체들 속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이 보여줬던 완벽한 외형과 내면, 영웅주의와는 거리가 먼, 연약하고 가녀린 인간의 실체 그대로를 영웅의 위치로 떠민 것이다.

이 시리즈에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Dr. Logos'는 철사와 스티로폼 등으로 열기설기 만들어진 위태로운 모습의 히어로, 죄책감의 제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The Lord of Guilt'는 비닐봉지와 와이어, 사탕껍질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작가는 이들을 시중에 판매되는 액션피규어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의 앙상한 피규어로 구현하거나 플립북, 아티스트북 형태의 만화책이나 일일이 손으로 그려낸 단편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다. 가장 보통의 모습을 한 영웅들은 현대인의 고정관념 속에 자리한 완벽한 영웅들의 모습, 사회가 요구하며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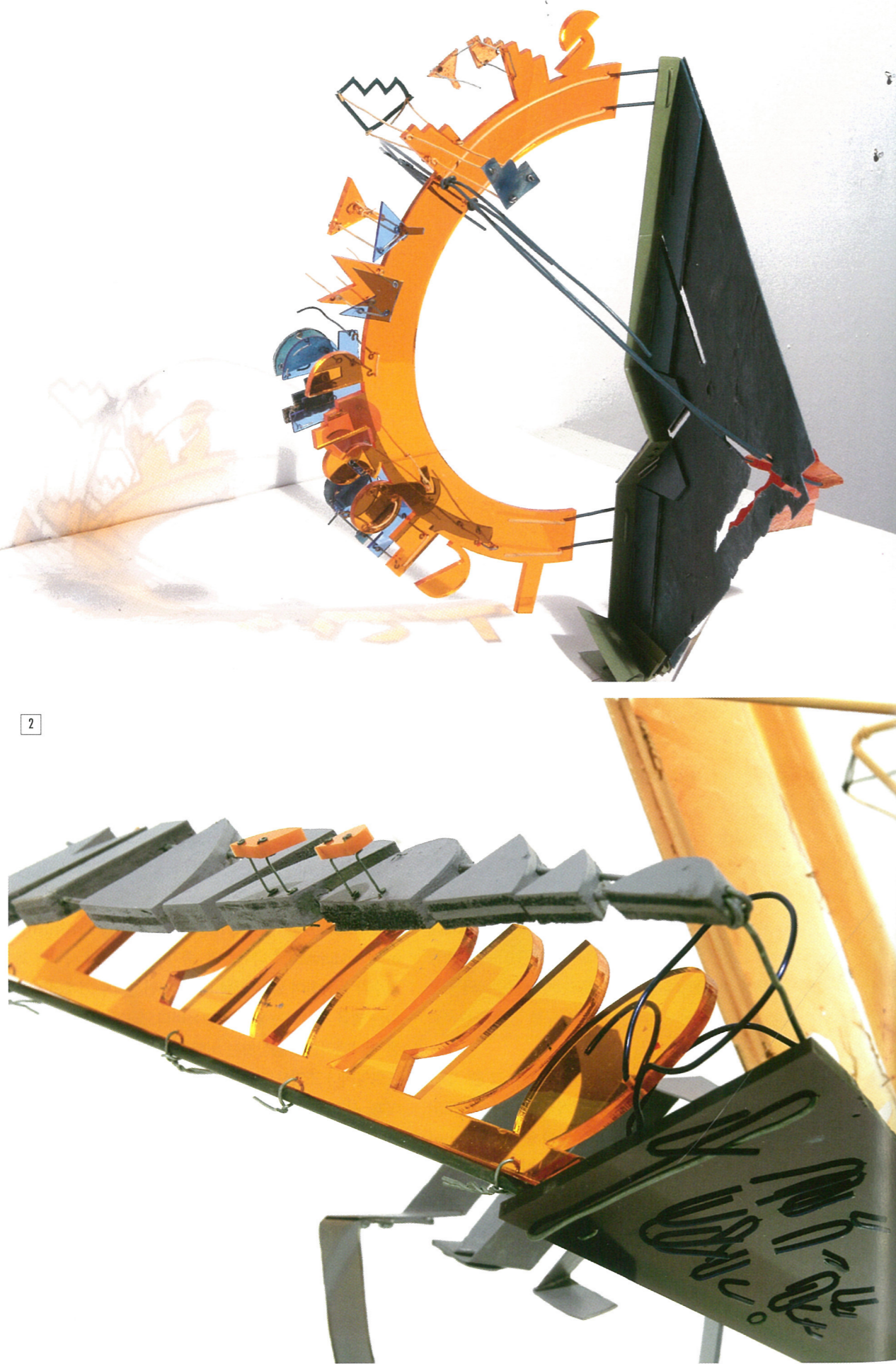
이 갈망하는 완벽성을 비틀어 완벽하기를 실패한, 불완전성에 대한 미학을 기념비적으로 담아냈다.

그 뒤를 이은 연작인 〈Flying-Practical Training〉은 비행과 비상에 대한 이미지가 증폭되어 나타났다. 시리즈의 중심이 되는 단편애니메이션은 〈Flying-Practical Training (for beginners)〉와 〈Flying-Practical Training (for intermediates)〉로 나뉘는데, 줄거리는 가상의 사이버 과학자/교수가 등장하여 날수 있을 리 없는 인간에게 기계의 도움 없이 나는 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교육비디오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또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비행을 돕기 위한 모의 시뮬레이터가 드로잉이나 조각으로 현실에 구현되어 영상작업을 뒷받침한다. 이때, 시리즈 곳곳에는 비상하는 인물의 형상을 한 벡터(vector)가 등장하는데, 이는 루카 부블리의 후속 시리즈인 〈Meta-Futurism〉연작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래주의를 넘어서서'라는 뜻의 〈Meta-Futurism〉시리즈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편집자인 F.T 마리네티에 의해 고안된 미래주의운동의 미학적 장치들과 시각요소들을 현대의 무대로 옮겨낸 연작이다. 당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럽의 타 국가들에 비해 열약했던 이

ny - I Closed My Monumental Corner e and Turquoise) 우레탄과 폴리에스터 기어, 에나멜 페인트, 글라스, 플라스틱 관, 1x52.1x43.2cm

I 16번지 작품 설치



탈리아를 유럽미술계의 주류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통이나 관습을 타파하고 신기술, 기계, 역동적인 움직임과 속도를 숭배하며 이를 다양한 시각예술매체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이자 폭력적인 성향의 미래주의자들은 동일한 시기에 이탈리아에 공존했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과 만나 파시즘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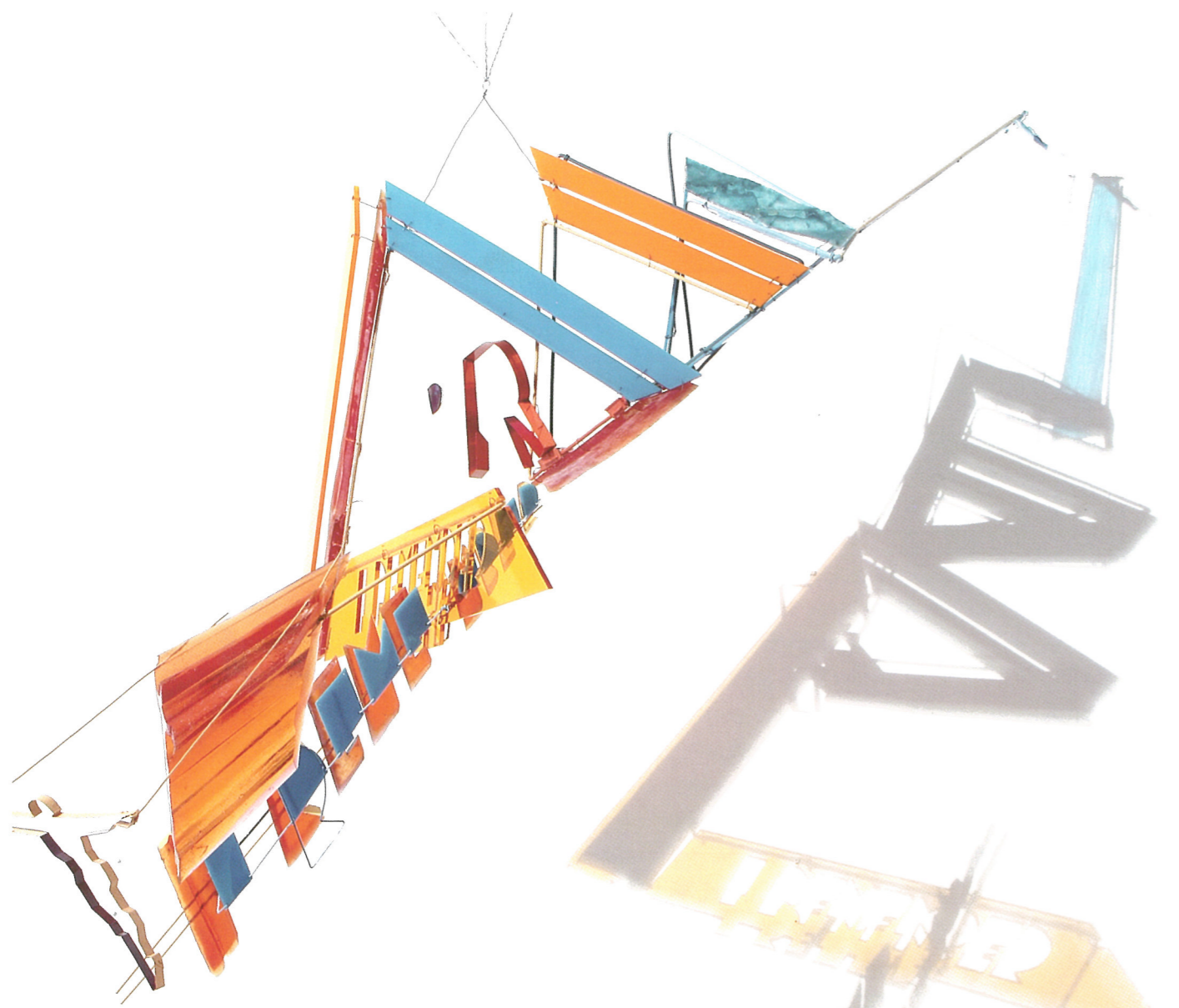
사실, 이탈리아인인 그가 '미래주의' 미학을 작품에 차용한다는 것은, 독일인 작가가 나치의 제3제국이 선보였던 리얼리즘 스타일을 사용한다거나 일본계 작가가 제국주의색이 만연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미래주의를 작품의 소재로 택하였을까. 어쩌서 작가는 파시스트의 유물을 다시금 현대의 미술계로 불러들인 것일까? 그리고 그는 미래주의의 무엇에 매료되었던 것인가? 작가는 한 시대의 민족적 영웅이 되기를 피하며, 힘과 기계문명을 숭배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가고만 미래주의자들의 실패기에 포커스를 맞췄다. 젊고 완벽한, 그리고 강인한 사회를 꿈꾸던 미래주의자들이 선보였던 다양한 트로피와 배너와 프로퍼간다 포스터들은 작가에 의해 패러디되어 불규칙적이고 불완전한 형태의 조형물과 평면작업들로 구성된 '트로피와 '프로퍼간다 포스터', '배너'의 하위그룹들로 나뉜다.

영화적 비현실이 실제로 돌출되듯, 지지대의 도움을 받아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속도와 움직임을 따라 형상화한 형형색색의 구조물들과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구조. 어딘지 투박하고 유기적인 2차원적 요소들이 한 군데에 ?집결하여 만들어진 조각들은 정교하지만 외부의 충격에 쉽사리 망가지는 연약한 팝업북 처럼 돌아나왔다. 이전의 연작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허황된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을 아이러니한 시점으로 내비춘다. 미래주의의 하위 장르인 에어로페인팅(Aeropainting)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들은 앞서 이전 연작들에서 언급한 바 있는 비상과 비행의 이미지, 날아오르는 사람을 벡터화한 형상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한다.

이렇듯 작가가 과거에 선보였던 연작들과 <Meta-Futurism>

연작이 공통적인 감성을 공유하는 이유는, <Meta-Futurism> 연작이 미래주의자들이 활개 쳤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작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겪었던 경험과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제작한 인터뷰-애니메이션 영상 <Adapting One's Senses to High Altitude Flying (for Intermediates) - An Almost Silent Version>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아버지는 당시 전쟁포로로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어머니는 비행공습 때 폭발음을 피해 손으로 귀를 막았었다는 기억을 풀어내는데 이때 등장하는 'Paradox', 'I Used to Cover My Ears' 같은 대사들이 메아리치듯 퍼져나간다. 동시에 영상과 함께하는 트로피와 배너, 그리고 포스터들이 영상에 등장하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대사, 그리고 그 대사들로부터 자유연상을 통해 수순끼리처럼 이어지는 단어들의 나열을 양분으로 증식한다. 영상 작품에서 퍼져 나온 의미심장한 단어들의 메아리가 작가에 의해 폴리에스터 레진의 몸뚱이를 입고, 과거의 에테르가 실체를 입듯 공기 중에 문신처럼 각인되는 것이다. 루카 부볼리는 영웅이고자 했던 자들의 실패한 발자취와, 그들과 동일한 시간대에 살며 그 실체를 경험했던 평범했던 이들의 개인사를 결합시켜 이를 '비영웅적 기억'에 대한 기념비로서 승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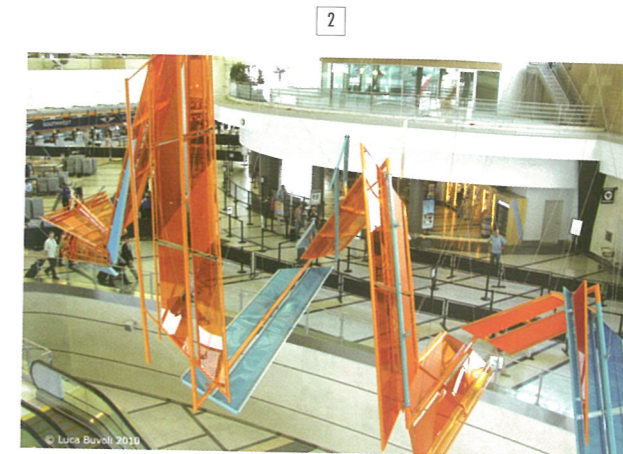
루카 부볼리는 과거의 유물로 부터 구성된 이상적인 미래의 부스러기들을 그러모아 현대라는 거대한 거푸집으로 구워낸 실패한 이상의 도자기들을 유머러스하게 선보인다. 한 시대를 이끌고자 했으나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 미래주의의 잔상이나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목표를 한 없이 바라보는 인간의 심리. 그 결과물들은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때로는 깊게 강단을 능수능란하게 조절하는 작가의 손에 의해 발랄하게 변주된다. 루카 부볼리의 작업세계에서 '필연적인 실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연작들은 이를테면, 이카루스의 화려한 비상 보다는 그 추락에 중점을 두고 이를 연속적으로 촬영하는 시각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유일무이한 시선을 매개로 기록되어지는 그 모든 허무한 이상들에 대한 서사는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꾸는 것이 운명인,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택한 그 말도 안 되는 모험에 대한 유쾌한 캐리커처다. ■



1. 《Remember (Triangular Spiral - Turquoise and Orange) Large》 강희 팔리
우레탄과 폴리메스터 레진, 와이어, 에나멜 페인트, 블랙시 글라스, 플라스틱 판, 금속, 나무 76.2x
83.8x180.3cm 2012 2. 《Vector H+》 휴스턴 공항 설치전경, 금속과 구조된 아크릴판 2010

Residues of the Future from Failure in the Past

• Article by Jin Jung-yoon Staff Reporter • Photo Courtesy of Gallery Hyundai



Since human beings began living on the Earth, they have pursued objectives and values that seem impossible to attain. Desire for flight and aviation has been one, and could only be achieved around modern times, even though only with the help of mechanical devices. This primal obsession with flight and aviation is the theme integrating artist Luca Buvoli's series. However, he also pays attention to human psychology and wishes to accomplish objectives impossible to attain. He extracts a disquieting state from failures derived from unrealistic, unattainable ideals., collapsing the pursuit of perfection.

Buvoli has worked in animation, artist books, sculpture, painting, and drawing, commanding various visual languages. He has presented three series of works, Not a Hero, Flying-Practical Drawing, and Meta-Futurism. Initiated in 1992, the Not a Super Hero series is based on comic books featuring super heroes published by Marvel Comics and DC

Comics, which he enjoyed as a child. In this series however, he presents feeble, wimpy humans different to perfect mass media heroes. Images of flight and aviation appear amplified in the series Flying-Practical Training. Its central work, a short animation, is divided into Flying-Practical Training (for beginners) and Flying-Practical Training (for intermediates). The animation is a sort of education video in which a pseudo-scientist teaches humans how to fly. A simulator in the animation is also in drawing or sculpture supporting his video work. Vector, a figure appearing in many parts of the series, is also in his Meta-Futurism series.

The Meta-Futurism series, referring to 'beyond futurism,' employs aesthetic devices and visual elements of Futurism, the art movement launched by Italian poet and editor Filippo Tommaso Marinetti in the early 20th century. Buvoli focuses on the failure of futurists who worshiped strength and mechanical

civilization to become national heroes. He combines failure of those trying to become heroes with commoners who experience true nature, raising this combination to a monument for 'non-heroic memory'.

Buvoli humorously presents the ceramics of failed ideals fired in an enormous mold of modernity with residues of the future devised from past relics. The afterimages of Futurism that tried to lead an age but faded into the mists of history and human psychology looking at unattainable objectives and its results are lively and nimbly modified by the artist's hand in a witty or profound manner. His series of inevitable failure are visual records concentrating on Icarus' fall rather than his splendid soaring. His narratives about vacant ideals chronicled from his unique perspective are delightful caricatures of absurd adventures we all know, living the past and present dreaming dreams that cannot be realized. ■